본 문서는 하나은행의 자산입니다. 행외 반출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하나은행

Hana Market Weekly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자금시장영업부 2023. 7. 31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장*정 / 0118208** / 2023-08-01 09:31:13

본 문서는 하나은행의 자산입니다. 행외 반출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주간 달러/원 동향(7/24~7/28)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7월 FOMC 경계감 지속되며 환율은 상승 출발했으나 중국 정부의 환율 안정 조치에 따른 위안화 약세 제한과 역외 달러 매도세 영향 등 반영되며 하락 전환. 이어 유로존 PMI 부진, BOJ 완화정책 지속 예상 등에 따른 달러 강세 흐름 속 상승했으나 중국 부양책 지원계획 소식과 위안화 강세 영향 속 재차 하락
- 중반 들어, 미 소비심리, 주택경기 호조로 인해 추가 금리인상 우려 강화되며 상승 압력 나타났으나 글로벌 달러 약세 전환 등의 영향 반영하며 하락
- 후반 들어, 연준의 25bp 금리인상이 시장 예상에 부합한 가운데 달러 약세에도 수급에 의한 결제수요 유입 등에 상승 전환. 이어 주 후반, 미 2분기 GDP 호조와 ECB 비둘기 스탠스, BOJ의 정책 수정 기대감 등에 소폭 하락하며 마감

달러/원 전망

- 미국 6월 PCE 가격지수 상승률이 하락한 가운데 2분기 고용비용지수도 시장 예상치와 전분기 수치를 밑돈 점 등이 디스인플레이션 기대감을 높이며 달러 강세 흐름을 제약할 것으로 전망
- 다만, 여전히 연내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란 점 등이 연준 매파 성향을 지지하며 환율 하단을 제한할 요인으로 판단
- 여기에 미국과 유럽의 극한 침체 예상으로부터 연착륙에 대한 기대도 위험선호를 자극할 요인으로 보이지만, 환율 저점을 낮추는 시점에서의 결제수요 유입 등 수급 측면이 하단을 제한할 요인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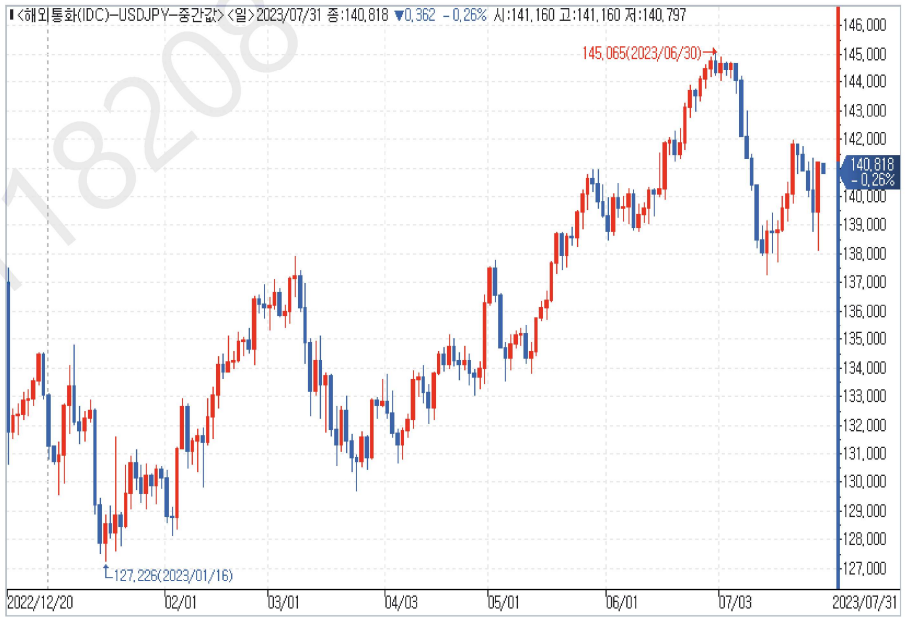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288.0	1,288.8	1,267.4	1,277.0	-11.0

예상거래범위
1,270원 ~ 1,285원

장*정 / 0118208** / 2023-08-01 09:31:13

본 문서는 하나은행의 자산입니다. 행외 반출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엔•유로화 동향 (7/24~7/28)



유로화 동향

- 주초, 유로존 및 독일 PMI가 50선 하회하며 유로존 경기침체 우려 지속되는 가운데 유로 약세 흐름 지속되며 출발. 이어 ECB 위원들의 완화적 발언과 유럽 경제지표 둔화에 따른 ECB 비둘기 성향 기대 등이 반영되며 약세 지속
- 중반 들어, 7월 FOMC에서의 금리인상 결정에도 시장에 상당부분 선반영된 측면과 ECB의 25bp 금리인상 가능성 등에 유로화 약세 흐름 제한되며 소폭 강세
- 후반 들어, ECB 총재가 7월 이후 데이터에 기반한 금리동결 가능성 시사하면서 유로화는 큰 폭의 약세 시현. 이어 주 후반, 독일 7월 CPI 하락에도 미 물가지표 둔화에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기대감 등이 부각됨에 따라 달러 대비 유로 강세 전환하며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1127	1.1149	1.0944	1.1017	-0.0110

엔화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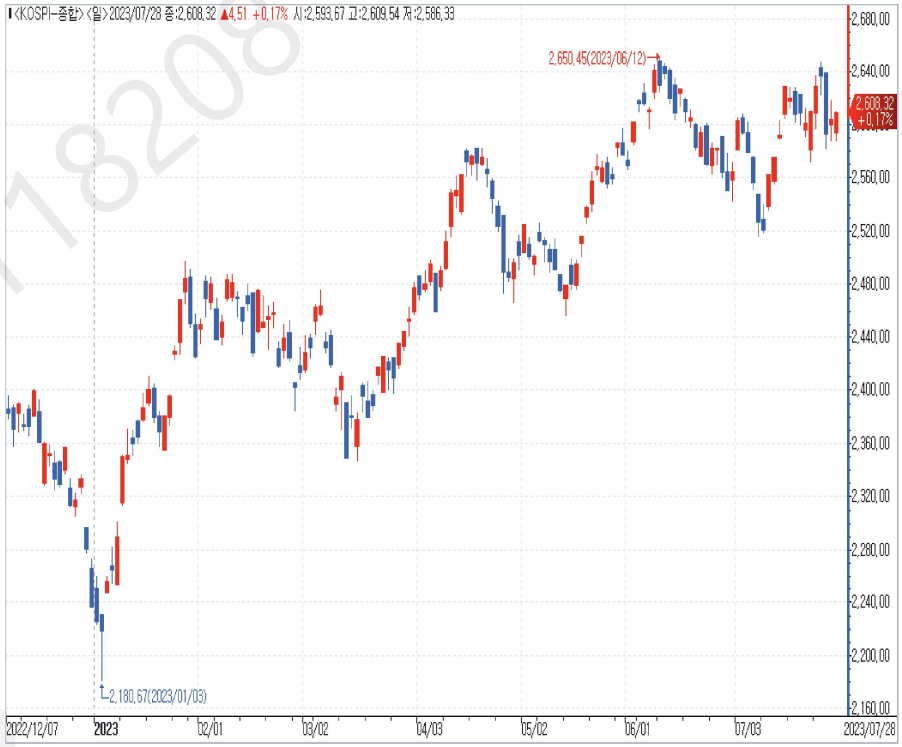
- 주초, BOJ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가능성에도 일본 당국 관계자의 환율변동 관련 구두개입성 발언 등이 엔화 약세 흐름 제한하며 소폭 강세. 이어 주요국 정책회의 대기하는 가운데 글로벌 달러 약세 영향 반영되며 엔화 강세
- 중반 들어, 연준의 25bp 금리인상에도 추가 긴축 행보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는 시장 인식 등으로 달러 약세 흐름 반영되며 엔화 강세 지속
- 후반 들어, BOJ가 YCC 정책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금리 상한제 시행 결정함에 따라 YCC 정책 수정 기대감 높아지며 엔화 강세. 이어 주 후반, BOJ 금융정책회의 후 시장에 선반영된 측면과 과대 낙폭 인식에 되돌림 나타난 영향으로 약세 흐름 전환하며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1.8	141.8	138.1	141.2	-0.6

장*정 / 0118208** / 2023-08-01 09:31:13

본 문서는 하나은행의 자산입니다. 행외 반출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7/24~7/28)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주초, 7월 FOMC에 대한 관망 심리가 짙어진 가운데 방향성에 대한 특이 이슈 등이 크게 불거지지 않으면서 수급상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 등으로 상승 출발 여기에 국내 2분기 GDP 속보치가 전분기 대비 0.6%를 나타내며 경기 부진이 완화하고 있다는 한은 평가 등도 상승 흐름을 지지
- 중반 들어. FOMC에 대한 경계 심리에 장중 횡보 양상을 보인 국고채 금리는 미 국채금리 하락에 연동되며 소폭 하락 전환
- 후반 들어, 시장 예상에 대체로 부합한 7월 FOMC 결과 반영하는 가운데, 한은의 대출제도 개편안 이슈가 국고채 시장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며 국고채 금리 하락 추세 이어진 후, 주 후반, 미 2분기 성장률의 시장 예상치 상회에 따른미 국채금리 상승세 반영 및 일본 YCC 정책 유연화 영향 등이 반영되며 상승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긍정적 코스피 상승 출발에 영향을 미친 가운데 2차 전지관련 업종 등으로 개인 매수세 강화. 이어 뉴욕증시의 주요 기술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들의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개인들의 2차 전지주 수급 강화 등으로 상승 지속
- 중반 들어, FOMC에 대한 경계감과 IMF의 국내 성장 전망 하향 등이 투자심리를 약화시킨 가운데 2차 전지 관련 업종의 변동성 확대에 따라 급락 시현
- 후반 들어, 7월 FOMC가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비둘기 스탠스로 해석된 가운데 반도체 업종 강세 등을 반영 상승 전환 후, 주 후반 급등락 양상을 보였던 2차 전지 관련 업종들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 강화 속에 상승 마감

장*정 / 0118208** / 2023-08-01 09:31:13